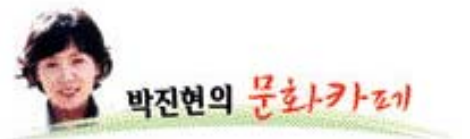


조선대미술관, 30일까지 '양두환, 그 삶과 예술세계'展

■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 광주 공연 막내러



'캣츠'가 광주에 남긴 것

치열한 예술혼 30년만의 초대

한국 목조각 선구자 33세로 요절...서양화·드로잉 작품도

1960년대 조각계의 스타로 떠오른 뒤 불과 33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 조각가 양두환(1941~1974)씨를 기리는 추모 특별전이 열린다.

조선대 미술과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지난 1971~72년 국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잇따라 수상함으로써 전국 조각계에서 명성을 얻었으나 1974년 뇌출혈로 타계했다.

특히 조각 분야의 이름을 정면으로 다룬 '상황-72', '상황-73'은 한국 조각의 리얼리즘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조선대학교미술관(관장 정운태)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전 '양두환, 그 삶과 예술세계'전을 개최한다.

양씨의 작품이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생전에 한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은데다 지난 1993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이 추진했던 추모전도 무산됐었기 때문.

이번 전시에는 양씨의 대표작인 상황-72', '상황-73'을 비롯 '풍요' '모자상' 등 주요 목조각 작품들이 선보인다. 그는 목재의 양감과 질감을 최대한 살려 유기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추구했다.

양씨가 숨을 거둠으로써 빛을 보지 못한 서양화, 드로잉 등도 전시된다. 드로잉은 끊임 없이 인체를 탐구해온 고인의 열정이 배어있는 누드 크로키와 담채를 곁들인 밑그림들이다.

양씨는 작업 뿐 아니라 제자 양성을 통해서도 호남 조각계를 살찌웠다. 최규철 광주예총회장, 정운태 조선대미술관장, 조각가 김왕연, 조관동씨 등이 그가 가르친 제자들



'상황 73'

이다.

미술평론가 조인호(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씨는 "양씨는 남도 문화전통에서 배어나는 회화적 감성과 당대 사회적 이슈를 조형화한 남도 현대조각의 대표 작가다"고 평가했다. 문의 062-230-783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성의 힘... 창조의무기

박미정 '바늘의 확산'展 19일까지 대동갤러리

박미정씨가 '바늘의 확산'을 주제로 대동갤러리에서 19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바늘'을 소재로 작업해온 박씨는 이번 개인전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바늘을 통해 모성애와 각박한 삶을 헤쳐나온 어머니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화폭에 옮겨진 바늘은 단순한 바느질 도구를 넘어 여성의 섬세함과 부드러움, 혹은 그 안에 내재한 강한 힘을 은유하고 있다.

"중력해체", '바늘, 그 형상 반복'은 바늘의 조형적인 미감을 강조함으로써 바늘 하나로 온갖 옷가지와 자수작품을 만들어 내던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바늘, 그 형상 반복'

광주시전에서 특선했으며 아시아미술대전, 한·일 현대미술전 등 단체전에 출품했다. 문의 062-222-007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역 공연문화 몰라보게 성숙

13회 공연 1만 8,000여명 찾아... 관객들 '대형작품' 매력에 흠뻑 빠져

16일 막을 내린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가 광주 지역 공연문화사(史)를 새롭게 썼다. 지난 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첫선을 보인 '캣츠'는 13회 공연에 모두 1만8천여명의 관객을 끌어 모으며 지역민들에게 가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캣츠'는 지금까지 광주 무대에 올려진 단일 작품으로는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웠으며 관객 동원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기록은 지난 2003년 열렸던 '캣츠'의 박탈 공연으로 당시 12회 공연에 1만 4천명의 관객을 동원했었다.

'캣츠' 공연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한국 공연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 관객들도 '대형작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뮤지컬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이미 '공연 도시'로 자리를 굳힌 대구를 비롯해 영국왕립발레단,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한 대전에 이어 최근에는 세계 4대 뮤지컬로 꼽

히는 '미스 사이공'과 프랑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 경남 김해까지 그 행렬에 가세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장기 대관을 할 수 있는 대형공연장이 한국에 불과한데다 시장성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대형 공연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결국 감증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서울로 '원정 관람'을 가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캣츠' 공연은 광주 지역에서도 대형 작품의 장기 공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관객층 역시 특정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체험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극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을 비롯해, 공연계의 블루칩인 20~30대 여성, 나이 지긋한 중년부부 등이 많이 관람했다.

또 정기 모임을 아예 '캣츠 관람'으로 대신하거나 아이 태교를 위해 극장을 찾은 임산부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친구들끼리 관람을 온 중·고생들은 난생 처

음 보는 화려한 공연에 열광했다.

관객들 역시 작품 감상을 위해 미리 CD를 구입해 음악을 듣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줄거리를 파악하는 등 '준비된 관객'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배우들이 뛰어난 춤과 노래를 펼칠 때마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열광적인 기립박수 세례를 보내며 배우들을 격려했다.

친구와 함께 공연장을 찾았던 김강민(16·국제고 1년)양은 "화려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캣츠' 공연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뮤지컬은 물론이고 문예회관을 좀 더 자주 찾아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김범룡(4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2003년 박탈 공연을 보고 난 후 구입한 CD를 들으면서 정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기회가 와 너무 행복했다"며 "앞으로 광주에서도 이런 좋은 작품들이 많이 공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광주문예회관을 찾은 관객들이 기념품을 구입하고 있다. 16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 '캣츠'는 13회 공연에 1만 8천여명의 관객들이 몰렸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오늘 소록도서 작은음악회

한센병 환자와 병원관계자들을 초청, 작은 음악회를 연다.

합창단은 17일 오후 2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좀처럼 문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의 빛 안에 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출연진은 합창단과 한현국·윤소영·이형가·변연성씨 등이다. 지휘는 이준식, 피아노 반주는 권환·임리라씨. 문의 062-527-36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는 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1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최고급관
2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3관 마이파더 (15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5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6관 디스타피아 (12세) / 즐거운 인생 (전제)	
7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8관 즐거운 인생 (전제)	
9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잡은 취재-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화려한 휴가 (12세)	
2관 마이파더 (15세)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5관 즐거운 인생 (전제)	
6관 디워 (12세) / 브라보마리아프 (12세)	
7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욕내·욕외 주차장 300대 *

* 낮고 높은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광주시립 영화시네마 ●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마이파더 (15세)	
2관 천애연 (15세) /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전제)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 사랑의 리시피 (전제)	
6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7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8관 브라보 마리아프 (12세) / 화려한 휴가 (12세)	
9관 즐거운 인생 (전제)	
10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 조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해상점 (100원) 잡힐리 상영중

성명연전 밤비 -11시 or 2시 -10시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마이 파더 (15세)	
2관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12세) / 두 얼굴의 여친 (15세)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다지필/15세)	
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 디스타피아 (12세)	
5관 즐거운 인생 (전제)	
6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7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로잡은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녹화 사무내 (모바일-개방)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사랑의 리시피 (전제)	
2관 마이 파더 (15세)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4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5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6관 즐거운 인생 (전제)	
7관 디워 (전제) / 화려한 휴가 (12세)	
8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9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매일심야 상영을 위한 전용홀 마련
● 전좌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alcinema.co.kr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2관 마이 파더 (15세)	
3관 즐거운 인생 (전제)	
4관 두 얼굴의 여친 (15세)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 (15세)	
6관 화려한 휴가 (12세) / 디워 (전제) (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